

5/17(화) 에스더 묵상 10

에스더 6:5-14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수어로 왕은 모르드개의 공적을 치하하기 위해 하만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에 하만은 자신에게 그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 착각하게 되고 그가 말한대로 모르드개가 모든 영광을 얻게 됩니다. 이에 하만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보상

아하수어로 왕은 이전에 하만의 말만 듣고 유다인들을 다 전멸하는 일이 허락을 해주었습니다(에 3:8, “하만이 아하수어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이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당시 하만은 그들이 어떤 민족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어로 왕에게 무익한 사람들인 것처럼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한편, 왕의 역대기에 기록된 일로 유대인 모르드개는 왕의 큰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만은 그 일이 자신에 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왕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게 됩니다(7-9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하수어로 왕은 이 엄청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하만의 예상과는 달리 이 보상은 하만이 죽이고자 했던 모르드개가 그대로 받게 됩니다(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개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왕의 명령대로 하만은 이 일을 모르드개에게 다 빠짐없이 행하게 됩니다(11절,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개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이 일을 행하는 하만과 모르드개의 입장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르드개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예상하지 않은 때에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놀랐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씩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계획보다 앞서 일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과거 엘리 제사장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전쟁에 패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은 그들이 승리했다고 장담했지만 그들의 계획과는 달리 하나님은 블레셋에서 스스로 이기시고 블레셋으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셨습니다(삼상 6:2,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는 블레셋에 빼앗긴 지 7개월 만에 다시 이스라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삼상 6:12,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하만의 번뇌

왕의 명령대로 모르드개에게 행한 하만은 이 일로 매우 혼란스럽고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그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죽이고자 했던 유대인 모르드개였기 때문입니다(12절, “모르드개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하만은 자신이 당한 황당한 일을 그의 아내와 모든 친구들에게 고하게 됩니다(13절,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개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이제 하만과 모르드개가 처한 상황이 이전과는 달리 유대인 모르드개에게 좀더 유리하게 돌아가게 되리라는 것을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은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에스더가 마련한 두 번째 잔치에 초대가 되어 나아가게 됩니다(14절,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오늘 본문을 묵상한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생각과 지혜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에서 가장 빛이 났습니다.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그들의 계획이 성공했다고 여겼지만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탄의 생각처럼 예수님이 힘없이 죽으신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속하신 승리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죽음과 사망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였다고 고백합니다(고전 2:8,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교만한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보다는 세상의 지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더 믿고 의지하는 자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지혜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님의 일하심 속에 겸손히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아프가니스탄을 위한 기도:** 탈레반의 장악 이후로 여성의 인권이 열악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탈레반은 여성들의 온 몸을 가린 부르카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고 여성이 남성 배우자나 보호자 없이 홀로 집에서부터 75km 이상을 여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여성의 교육의 기회도 말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에 의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여성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그리고 국제사회의 도움이 있도록 함께 중보합니다.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험든 5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남아공 김영무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